



삼성교회소식

삼성교회 청소년부 봉사활동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청소년부 학생 18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쌀과 라면을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상계동에 위치한 신작교회에서 매년 불암산 인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연탄, 쌀, 라면 등을 나누어 드리는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연탄 봉사활동에 이어 올해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연탄을 직접 보고, 어르신들께 물품을 전해드리며 그분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소중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소망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나길 바라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교회 청소년부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No Longer Hiding: Our New Identity in Jesus



Passage: Genesis 3:7-10 (ESV)

Date: January 11, 2026

Pastor: Dong Suk Chung

God told man that if he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will surely die." After Adam and Eve ate from that tree,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naked and covered themselves with fig leaves. When they heard the sound of God, they hid among the trees to avoid His presence. God called to Adam and asked, "Where are you?"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umans—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nd meant to be united with Him—departed from their proper place of existence. Hearing God's voice yet hiding from His presence: this is precisely the condition of people living in the world today.

When a person loses their sense of place in the world, they lose their understanding of who they are and for what purpose they were born. As a result, shame and fear arise, and they try to hide because they do not want their true nature to be revealed. This is the life of fallen humans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et, God still seeks after people. His question, "Where are you?", is not referring to their physical location but their departure from His original design. God placed man in a garden abundant with beautiful fruits and the tree of life, where they could be one with God. He clearly warned them about the tree of knowledge, saying, "You will surely die." God placed humans in this position, but Satan deceived them by saying, "You can become like God," and destroyed everything.

People who have left this position only talk about their naked and fearful state—they do not repent. God desires a confession such as, "I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 was ashamed and afraid, so I hid. Please forgive me." Instead, people blame God for their suffering and pain. This is the essence of fallen humans.

The act of covering themselves with fig leaves represents the religion created by humans. Hiding behind the many trees in the garden symbolizes hiding behind the worldly things that people strive for throughout their lives—namely, material possessions, honor, knowledge, wealth, and glory. When people introduce themselves, they do not say "I am a child of God," but instead present their identities as business cards: musician, politician, or CEO. However, those are just things I own or statuses I have obtained—they are not the true "me" that God

is searching for. God does not ask how much I have or what I own. Even today, He speaks, "I created you in My image and likeness—where are you now?" Yet, because we are still naked, we remain afraid and keep hiding. Even if we gain the whole world or live in the best circumstances, if we do not know who we truly are, then there is no true joy or hope.

Despite of our flawed human nature, God did not give up on 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John 3:16]. God became man, lived as one of 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completing the work of a new creation. In Him, our old self has died and we have already become new people in Christ. We are now living in the age of faith of believing this truth.

In the historical work of salvation, there is absolutely no human effort or merit involved. Abraham was not justified by his works but by believing in God's words. Thus he received Isaac at 100 years of age, when he was as good as dead. Likewise, today, though we have nothing but sin, we have received Jesus as our new life by believing God's words in faith, responding to His calling.

So, as Jesus comes to live in me and extends His reign over my life, that becomes my territory, inheritance, and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Even in sickness, we hold onto the verse, "By His wounds I am healed," and live by faith, declaring, "In Jesus, this truth is mine." Regarding daily needs such as food and drink, as the Word says,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all problems have already been resolved in Jesus. We must not be deceived by our feelings or circumstances, but believe wha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in Christ. We must believe that our spirit, soul, and body are complete in Jesus, deny the complicated thoughts and emotions that arise within us,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Him.

The Lord is pleased when we believe the truth that Jesus shed His blood, died, and rose again—and that we also died and rose with Him. The moment we believe these words, the Holy Spirit works in us, and through that work, He leads us to believe the Word more deeply and to praise God. Therefore, in any situation, the cross and Jesus Christ must be our foundation.

When we know our true identity is one that is united with Christ, we will give thanks and praise no matter what happens. This is one who "overcomes the world". Jesus is in me, and I am in Jesus—this is my new identity. Remembering that we who once hid behind trees have become confident children of God, may this new year be one in which we boldly overcome the world and greatly praise God.

심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1월 25일 2026년

NASUNGCHURCH.NET

91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장 7-10절

날짜: 1월 11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사람은 그 존재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낯을 피하여 숨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숨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로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던 본래의 위치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과가 있는 동산에 두셨고, 선악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위치에 두셨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을 속여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위치를 떠난 사람은 자신의 벗고 두려운 상태만 말할 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원하시지만,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의미합니다. 동산의 수많은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평생 수고하며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 곧 물질과 명예, 지식과 부귀영화 뒤에 숨는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음악가, 국회의원, 회사 사장과 같은 명함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소유일 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참된 기쁨과 소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게 오신 예수의 확대가 나의 영토이자 기업이며 영원한 하늘 나라입니다. 병이 있을 때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환경에 속지 말고,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인해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참 정체를 안다면 어떤 일이 와도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새 정체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던 내가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양희 집사 86세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간소식

- 다음 주일에는 2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은사별 사역 섬김신청서를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우들은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은사별 사역섬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1월달 계시록 사경회 집회 CD가 준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영아부와 유년부에서 봉사해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달에 한번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부는 아기 돌봄이고, 유년부는 분방공부를 가르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사무실이나 이보현 자매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 대예배실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영어부 예배 (RHBC) | 오전 11시10분 | EM 예배실 |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 유치, 유년부 (Seeds) | 오전 11시 | Seeds Room |
| 중, 고등부 (Abide) | 오전 11시 10분 | EM 예배실 |